

# KIA 박진태, 잊지 못할 어버이날 ... “후회 없이 던지겠다”

청각장애 아버지 시구하고  
딸은 아빠와 함께 시타 이벤트  
“가족에 좋은 추억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는 어버이날을 보낸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박진태가 잊을 수 없는 시즌을 위해 이를 악물었다.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8일 챔피언스필드에는 마음 따뜻해지는 시구와 시타가 있었다. 두산베어스와 2차전이 열린 이날 박진태의 아버지 박금기씨와 딸 수영양이 시구·시타자로 나섰다.

아직 어린 딸을 품에 안은 박진태는 아버지가 던지는 공을 받으며 잊지 못할 어버이날을 보냈다.

어려움을 딛고 오른 프로 무대에 아버지를 초대 한 박진태의 마음은 특별했다. 박진태의 부모는 청각 장애인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야구 뒷바라지를 했던 아버지는 이날 당당히 1군 선수로 자리한 아들과 나란히 그라운드에 섰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에게 공을 건네면서 행복한 하루를 눈과 마음에 새겼다.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박진태는 지난 4월 10일 1군에 콜업됐다.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에 나와 묵묵히 역할을 했던 그는 공격적인 피칭으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혔다.

또 다른 사이드암 박준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박진태는 9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3-3으로 맞선 7회초 등판해 삼자범퇴를 만들기도 했다.

박진태는 9일 “사실 어제보다 아버지께서 시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더 긴장했던 것 같다”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였다. 야구하면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까 말까 한데 운 좋게 구단에서 좋게 봐주셨다.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KIA 박진태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아버지 박금기(오른쪽 두번째)씨와 딸 수영양을 초청해 시구·시타 행사를 했다. 시구를 마친 박씨가 홈에서 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또 “아버지께서 야구장에서는 티 많이 안 내셨는데 집에 가서서 좋아하셨다. 주변에서도 많이 축하 해주셨다”며 웃었다.

독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마운드에 오르면서 만들어 낸 2021시즌이다.

박진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더 독하게 먹은 것 같다. 하는 것은 꼭

같이 열심히 했다”며 “기술적인 것은 당장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서도 독기를 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가서 잘 던지든 못 던지든 이 악물고 하려고 한다. 맞더라도 시원하게 맞고 시원하게 잘 던지고, 칠 테면 쳐봐라 이런 생각이다”며 “후회 없이 던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태의 목표는 지금 독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진태는 “어떤 역할이건 무엇이든 경기에 나가면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시즌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주환 1500경기 출장 통산 54번째 기록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나주환이 1500경기 출장 기록을 이뤘다. 통산 54번째 기록이다.

나주환은 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더블헤더 2차전에서 8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두산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난 나주환의 1500경기가 채워졌다.

천안 복일고 출신의 나주환은 2003년 두산의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 선수가 됐다. 그리고 이해 4월 5일 삼성전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두산을 거쳐 SK(현 SSG)에서 활약했던 그는 2019시즌이 끝난 뒤 야구 인생의 갈림길에 섰다.

FA 자격을 얻었던 나주환은 권리를 포기했지만 SK의 2020시즌 구상에 이름이 빠졌다. 현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그는 KIA와의 부상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를 야구 인생 마지막 무대로 삼게 됐다.

트레이드 첫해 나주환은 팀의 부상 위기에 기회를 얻으며, 전선후 수비수로 역할을 해냈다. 그는 64경기에 나와 204타수 57안타, 0.279의 타율과 함께 26타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수비에서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며 위기의 내야를 지탱해줬다.

나주환은 올 시즌에는 최형우에 이어 팀의 넘버 2로 자리했다. 그리고 4월 4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다. 5월 2일 KT전을 끝으로 벤치를 지켰던 나주환은 미세먼지 영향으로 더블헤더가 진행된 9일 2차전 선발로 나서 1500경기 출장 기록을 완성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토트넘-맨 왼쪽)이 8일 영국 리즈 엘런 로드 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반 25분 1-1 동점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 EPL 17호·시즌 22호 골 ... 개인 최다골 기록에도 웃지 못한 손흥민

### 차범근과 유러피그 시즌 최다골 타이

손흥민(29·토트넘)이 프로 데뷔 이후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손흥민은 8일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 1-1 동점골을 만드는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EPL 17번째이자 리그컵(카리바컵) 1골, 유러피그연맹(UEFA) 유로파리그 4골(예선 1골 포함)까지 합해 공식전을 통틀어서는 22번째 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6-2017시즌의 21골을 넘는 개인 한 시즌 공식전 최다 골 신기록을 작성했다.

사우샘프턴과의 29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시즌

20호, 셰필드와의 34라운드에서 21호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EPL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축구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아울러 손흥민은 정규리그 득점뿐만 아니라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남긴 17골과 같은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러피그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이뤘다.

여기에 손흥민은 EPL 통산 70골까지 돌파해 뜻깊은 기록들을 남겼다.

하지만 토트넘은 1-3으로 쳐 리그 2연승을 멈췄다.

6위(승점 56)를 지닌 토트넘은 유러피그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막 선인 4위 첼시(승점 61)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해 추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최전방에 해리 케인, 2선에 손흥민-렐리 알라-개러스 베일을 배치한 토트넘은 전반 13분 한 골을 먼저 내렸다.

잭 해리슨의 크로스를 세르히오 레길론이 쳐낸 것이 골대 쪽으로 날아가 자책골이 될 뻔한 걸 위고 로리스 골키퍼가 막아냈으나 스튜어트 달러스가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리즈에 선제골을 안겼다.

손흥민은 전반 25분 센터 서클에서부터 쇄도하던 알리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오른발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 42분 수비가 풀리며 파트릭 뱌머에게 실점하고, 이어 후반 39분 로드리고에게 결장타를 얻어맞았다.

/연합뉴스

## 전남 드래곤즈, 경남 꺾고 1위 싸움 다시 ‘시동’

전남 드래곤즈가 1위 싸움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전남이 9일 장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1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3연승 뒤 1위 1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적지에서 승리 행진을 재개했다.

전남전에는 경남의 공세가 매서웠다.

전남 34분에는 간접 프리킥 상황까지 몰렸다.

전남 골키퍼 박준혁이 골킥을 하다가 넘어졌다. 전남 수비가 백패스를 하면서 박준혁이 다시 킥을 했지만 간접 프리킥이 선언됐다. 위기 상황에서 ‘캡틴’ 이종호가 공을 피하지 않고 얼굴로 실점을 막았다.

후반전 양상은 달랐다. 전남이 후반 6분 침묵을 깼다. 코너킥 상황에서 이종호의 헤더가 골키퍼에 막혔지만 장준혁이 흘러나온 공을 다시 헤더로 연결하면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종료 직전 전남이 승리를 확정하는 페널티 킥을 만들었다. 페널티킥에서 장준혁이 김동진과의 충돌로 넘어졌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끝에 전남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발로텔리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대를 가르면서 2-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앞선 전남은 3연승을 달리며 2위로 치고 올랐지만 9라운드 안양과의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하나시너지와의 경기에서는 1-1 무승부에 만족하면서 3위가 됐다.

안양이 5연승 행진 속에 승점 4점 차까지 멀어졌지만 이날 승리로 전남은 1점 차로 다시 간격을 좁히며 2위가 됐다.

한편 서울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주말 서울전을 선 광주는 K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